

109. 저온 Stress가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제 1 보. 죄아종자 저온처리와 유묘 생육

작물시험장 이동진, 성기영, 이문희, 박석홍

Effect of low temperature stress on rice growth.

I. Rice seedling growth as affected by low temperature to germination stage.

Crop Exp. Station, Dong Jin Lee, Ki Yeong Seong, Moon Hee Lee, Seok Hong Park

실험목적 :

벼의 죄아종자에 저온처리를 하여 유묘기 생육 및 적고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건묘육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재료 및 방법 :

일반계 품종인 오대벼와 다수계품종인 풍산벼, 남풍벼, 가야벼 및 서광벼 등 5품종을 공시하여 작물시험장 인공기상실 정밀유리실에서 6월 16일 4각포트 ($5\times 15\times 10\text{ cm}$)에 파종하였다.

저온처리는 죄아종자를 4°C 에서 0, 2, 4, 6, 8일간 처리한 후 파종하여 주간 25°C , 야간 20°C 에서 생육시켰으며 초장, 입수, 총근장, 건물증등을 경시적으로 조사하였다. 발근량은 6일기에 상온 (주간 25°C , 야간 20°C)에서 5일간 저온 ($17/17^{\circ}\text{C}$)에 10일간 처리후 조사하였으며, 유묘기 적고 정도는 5엽기에 기온 28°C , 수온 12°C 에서 3일간 처리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및 고찰 :

죄아종자 처리기간에 따른 초장 및 균장은 저온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계품종인 오대벼는 무처리에 대한 단축 정도가 작았으나, 다수계품종들은 그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4일처리 까지는 단축정도가 완만했으나 6일부터는 크게 나타나므로써 적정 경화처리 기간은 4일 정도라고 생각되었다.

5엽기에 저온 처리에 의한 적고정도를 검토한 결과 (표 1) 오대벼에서는 적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수계품종들에서는 죄아종자에 저온처리 (4°C 에서 4일간)를 함으로써 적고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후 일수에 따른 생육행질(초장, 입수, 균량, 건물증 등)의 증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 입수는 무처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초장은 처리구가 무처리에 비하여 생육 초기에는 작았으나 파종후 15일에는 비슷하였다 (그림 1). 균수 및 총근장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무처리 보다 많고, 길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건물증은 생육 초기에는 처리구가 무처리 보다 가벼웠으나 파종후 15일이 되면 다소 무거운 경향이었다.

발근량(6엽기)은 표 2에서와 같이 죄아종자 저온처리가 무처리에 비하여 발생 균수가 많고 평균근장이 길었으며 그 무처리에 대한 효과는 저온($17/17^{\circ}\text{C}$) 처리하에서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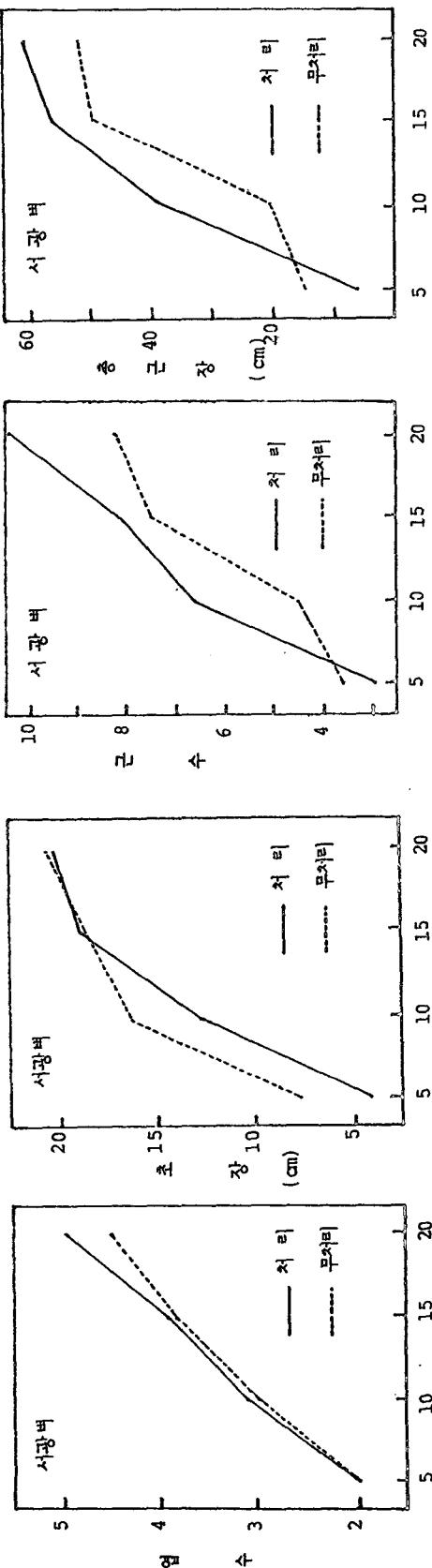


그림 1. 파종후 일수에 따른 염수 및 소장 증가 추이 ($25/20^{\circ}\text{C}$)
지온처리는 4°C 4일간 쇠아종자에 처리

표 1. 쇠아 종자 지온처리 (4일간)와 적고 발생 정도

품종	무 처리					(적고정도 : 0.9)
	3월	4월	5월	3월	4월	
오데벼	0	0	0	0	0	
옹산벼	4	3	3	1	1	
남ulgong벼	5	4	5	2	2	
가야벼	7	4	4	2	2	
서광벼	7	5	5	2	2	

○ 처리방법 : 28°C (기온) / 12°C (수온), 3일

그림 2. 파종후 일수에 따른 균수 및 총근장 증가 추이 ($25/20^{\circ}\text{C}$)
지온처리는 4°C 4일간 쇠아종자에 처리

표 2. 쇠아종자 처리(4일간)에 따른 유료의 발근량

구분	25/20^{\circ}\text{C}(처티후 5일)		17/17^{\circ}\text{C}(처티후 10일)	
	처리	무 처리	처리	무 처리
근수(개)	6.1	6.0	6.4	3.4
평균근장(cm)	3.6	2.1	1.9	1.1

○ 품종 : 서광벼 ○ 발근처리 : 6일기